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탐색 / 3

II. 서남아 각국의 정치·경제 동향 / 5

- | | |
|----|----------|
| 5 | 1. 인도 |
| 8 | 2. 파키스탄 |
| 10 | 3. 방글라데시 |
| 12 | 4. 스리랑카 |

III. 서남아 4개국 투자여건과 진출 유망산업 / 14

- | | |
|----|----------|
| 14 | 1. 인도 |
| 17 | 2. 파키스탄 |
| 20 | 3. 방글라데시 |
| 22 | 4. 스리랑카 |

IV. 서남아 투자 7계명 / 25

요 약

최근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에 임가공 투자진출 집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정책이 양적성장에서 질적발전으로 기조를 선회함에 따라 외자기업의 세제혜택 축소, 가공무역의 금지 및 제한, 노동자 권익 제고 등의 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는 우리 기업의 도산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만큼 투자리스크를 분산하고 신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해외투자처를 발굴, 다변화된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 지역은 15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시장규모,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 등 투자지로서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정치적인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연평균 6~7%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장으로 연평균 9% 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동 지역의 각국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친FDI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처로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서남아시아는 개개의 국가 입장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2006년 발효된 SAFTA로 묶인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역의 맹주인 인도는 이미 다국적 기업의 필수적인 투자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인건비와 부동산 임차료 등 비용 경쟁력이 주변 3개국에 비해 낮다. 그러므로 투자 목적에 따라 시장 성장에 주목한 내수시장 공략형 투자는 인도로, 인도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의 경우에는 인도를 포함한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주변 3개국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투자처의 다변화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신규시장 투자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서남아시아 투자환경을 점검해보고 진출 유망산업과 우리기업의 투자시 유의사항을 담았다.

I.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탐색

□ 우리 중소기업의 투자는 중국 및 특정 개도국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

-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대기업의 해외투자진출시 협력업체 동반진출, 신규 시장 개척 목적의 투자진출 및 단순 임가공 후 제3국 수출 목적 투자진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순임가공을 통한 제3국 수출목적 투자진출 기업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업이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특히 최근 3개년('05~'07년)간 중국(29.8%)과 베트남(5.69%)에 대한 투자금액이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투자액의 35%를 초과하는 등 특정 지역 집중화 현상이 나타남.
-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단순 임가공 중심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 투자건당 평균 투자금액이 각각 40만불, 46만불로, 전체 평균인 69만불에 미치지 못함.

<표 1> 최근 3개년 우리나라의 4대 투자대상국 투자 통계

(단위: US\$ 천)

국가	연도별 투자금액				국별 투자 집중도(%)	건당 평균 투자금액
	2005	2006	2007	합계		
중국	2,773,498	3,348,639	5,231,133	11,353,270	29.8	400
미국	1,256,901	1,794,290	3,407,170	6,458,360	17.0	819
홍콩	273,858	841,321	1,158,691	2,273,870	6.0	2,084
베트남	309,612	588,407	1,269,883	2,167,902	5.7	457
해외투자 총계	6,791,694	10,957,519	20,351,730	38,100,943	100.0	690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투자 리스크 분산 및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처 다변화 필요성 증대

- 최근 중국과 베트남의 정책기조 변경, 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양적 경제성장 정책에서 질적 발전정책으로 경제정책 전반의 기조를 선회하면서, 외자기업의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가공무역을 금지 또는 제한하였으며, 노동자 권익을 제고하는 정책을 도입함.
- 베트남의 외자유치정책은 중국의 정책 사례를 따르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으며, 금년 들어 외국인 투자를 질 위주로 선별해서 받겠다고 선언하고 지방 정부의 맹목적인 외자유치승인에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 베트남 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됨.
-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의 악화에 빠른 대처가 어려워 경영환경 악화가 연쇄 도산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투자리스크를 분산하고 신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투자처를 발굴, 다변화된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중국, 동남아에서 서남아시아로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서남아시아 지역은 15억에 가까운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시장규모,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 등 투자지로서의 장점을 보유함.
- 특히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장으로 연평균 9%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매력 평가기준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투자처 다변화의 필요가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2008년 서남아시아 투자 환경을 점검해보고 진출 유망 산업과 우리 기업의 투자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서남아시아 각국의 정치경제 동향

1. 인도

가. 8% 이상의 고도 성장세 지속

□ 인도 경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2005-06년 9.0%, 2006-07년 8.7% 성장과 함께 2008-09년에도 최소 8%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당초 9.6%이상의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세계 경제의 침체 등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위축되었으며, 특히 미국 등 서방의존도가 높은 IT 산업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인도 성장의 동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도성장으로 제조업의 경우 2006-07년 12%, 2007-08년 9.6%(예상치) 성장하였음.

나. 지속적이나 신중한 대외개방정책

□ 외국인 투자는 인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영세상인, 국내기업의 반발 및 여론 등을 의식하여 신중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 2009년 총선을 앞두고 빈민층과 소외계층의 지지를 받고 야당인 BJP당이 주류를 이루는 NDA연정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표를 의식한 현정부는 원칙적으로는 개방을 추진하되 신중한 개방으로 방향을 선회

○ 각종 투자관련 규제의 완화 및 투자 가능 분야의 확대 추세는 변함이 없으나, 일부 외국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통신업, 소매업, 금융업, 부동산 개발업 등의 경우 추가개방 일정이 불투명함.

다. 인프라 개발 열기 지속

- 인프라부재가 인도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하에 인프라 관련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에도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 공항, 도로, 지하철, 발전소 등 다방면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분야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인도 제1의 민간은행인 ICICI는 200억 달러규모의 인프라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IIFC(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는 시티은행과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펀드 조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
- 민간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및 일본정부의 ODA 자금 등이 인도 인프라 개발을 위해 유입되고 있음.
- ADB는 2008-2010년 대인도 투자의 30%를 인프라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며 세계은행의 경우 마하라슈트라주 인프라개발에 6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 일본정부는 그간 ODA를 활용하여 델리지하철 건설 등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에는 델리-뭄바이 화물전용철도망(DFC)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중심으로 900억 달러가 소요되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예상되고 있음.

라. 신흥중산층의 성장

- 고도 경제성장의 수혜자가 IT, 금융 산업 등의 전문직 종사자부터 다양한 성장 산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인도의 소비를 견인하는 신흥중산층으로 성장하고 있음.
- 신흥중산층의 총 소비지출규모는 향후 20년간 인도 경제가 실질 연평균성장률 7.3%를 유지할 경우 2006년의 US\$ 4,207억에서 2025년 US\$ 1조 7,3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막대한 소비잠재력을 기반으로 인도는 소비자 시장의 규모 기준으로 현재의 12위에서 2025년에는 세계 5위 시장으로 올라설 것이 전망됨.

마. 연립정부의 불안요소 지속

-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회당(INC)은 공산당 등 좌파세력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하고 있는데, 좌파세력은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사안을 정부가 추진할 때마다 연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연정 운영상의 불안요소가 지속되고 있음
- 인도의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미국-인도간 핵협정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연정참여를 철회하겠다고 좌파지도부에서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며, 현 정부도 경제개발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이를 포기할 수 없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소매업 개방 등 좌파세력의 주요 지지기반인 서민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집권당의 일관성있는 개혁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음.

2. 파키스탄

가. 파키스탄 총선종료, 시장 불확실성 제거 기대

- 2007년 파키스탄 정정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총선이 큰 소요사태 없이 2월 18일 예정대로 치러져 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로 중장기적으로는 파키스탄의 경제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됨.
- 지난 해 12월 선거연설 직후 암살된 베네지르 부토의 파키스탄 인민당(PPP)과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이끄는 PML-N 등 야당이 압승하였으며, 무사라프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실질적 여당인 PML-Q는 참패함.
- 선거 이후 PPP와 PML-N은 연립정부구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정부 구성과정에서 일부 정파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 우려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함

나. 주요국과의 FTA 협상 동시 추진

- 파키스탄 정부는 스리랑카, 중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의 FTA 및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체결 및 발효에 이어 주요국과의 협정 체결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등 대외교역 확대 노력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 기반을 다지고자 함.
- 방글라데시, 이란, 터키 등과 협정 체결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FTA를 발판으로 파키스탄 시장 진출을 강화하여 지난해 종료된 2006/07 회계연도(2006.7-2007.6)에 파키스탄 최대수출국으로 부상
- 2006년 7월 발효된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으로 파키스탄의 역내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남아시아 지역은 인구 15억 이상의 거대 잠재시장으로 관세 인하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시장통합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인도와의 관계개선 노력 강화

- 2005년 10월 파키스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대한 공동 구호활동,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체결 등에 힘입어 양국관계가 급속히 호전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음.
- 1947년 인도의 독립 당시 종교적 문제로 현재의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면서 시작된 양국의 갈등은 카슈미르 분쟁,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둘러싸고 첨예해졌으며, 3차례의 양국간 전쟁 및 양국의 핵무기 개발 경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중요 불안요소로 작용해 옴.
- 지난 2월 15일 양국간 항공편을 주당 12회에서 28회로 늘리는 안이 합의되었으며, 1994년 추진되다 실질적으로 중단상태에 놓인 이란-파키스탄-인도 가스파이프 연결사업 진행 역시 심도 있게 논의되는 등 실질적인 관계개선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음.

라. 내수시장의 성장 확대

- 최근 연평균 7%대의 견실한 경제성장세와 맞물려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 이동통신산업 등이 급속한 성장세를 시현함.
- 파키스탄은 대 테러전쟁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미국 등 서방국가의 원조를 이끌어 낸 데 힘입어 최근 2~3년간 고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및 신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동통신 분야의 투자 확대와 견실한 경제성장세가 맞물려 2007년 5월 파키스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의 35%를 상회하는 6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부의 통신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어 시장 성장세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 성장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파키스탄의 자동차 생산량은 3년전 10여만 대에서 2006-07 회계연도 기준 30만대 수준까지 확대되었음.

3. 방글라데시

가. 과도 군부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정치적 불안요인

□ 2007년 1월 11일 출범한 과도 군부정권은 초기에 부패청산 및 공정선거와 부정축재자 처벌 등을 내걸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노력들이 퇴색되고, 당초 약속대로 오는 10월 선거정부를 출범시킬 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함.

- 군부는 이전 정부의 집권 종료후 여야간의 선거관련 정쟁이 격화됨에 따라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과도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2008년 10월 이전에 선거정부를 출범시키기로 약속함.
- 군부 정권은 초기 단계에는 선거법 개정, 제도개혁, 부패청산, 부정축재자 축출, 경제안정을 기치로 내걸고 대대적인 정화를 벌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비상사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정부패 단속 명목하에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며, 선거정부 출범에 대한 의지도 의심을 받음.
- 최근 유럽, 미국 및 관련 후원 그룹으로부터도 현 군부정권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한 선거를 통해 선거정부를 출범시키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이 또한 부담으로 작용함.

나. 과도한 부패 단속으로 인한 경기 위축

- 현 군부정권의 강력한 부채척결 촉진정책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수천 명의 기업가가 수감되는 등 국가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기업의 투자 기피 현상으로 인해 국가 생산성이 둔화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됨.
- 특히 회사 설립 및 건물 신축 시 부정축재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됨.

다. 자연재해로 인한 물가상승

- 자연재해에 취약한 방글라데시의 경우 2007년도 두차례의 홍수와 대형 사이클론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감소로 물가가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짐.
- 물가수준이 전년대비 약 25% 상승하여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쌀, 밀가루, 식용유, 양파, 우유 등 생필품은 전년대비 45%나 인상되어 시민생활이 궁핍화되고 현 군부정권의 경제안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함.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금년도 식품인플레이션률을 9.2%, 비식품인플레이션률을 6.5%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라.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전망

- 과도 군부정권 출범 이후 정국불안에 대한 우려로 FDI 유입이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제도개혁 노력 및 저임 노동력 등 투자처로서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 정부는 항구, 세관 등 집행기관의 행정지연과 부패행위 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개혁위원회, 진실위원회, 사업환경개선포럼 등을 설치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집권 정당에 관계 없이 외국인투자유치가 방글라데시 최빈국 지위탈출의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어 향후 방글라데시 정부의 친FDI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 스리랑카

가. 취약한 정권 기반으로 인한 정치불안 및 경제개발정책 추진의 한계

- 군소 정당 연정의 취약한 정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영입한 최대야당(UNP) 일부 인사와 연립여당내 강경파(JVP)가 주요 현안에서 마찰을 빚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 개방 및 개발정책 추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 기본적으로 경제 개방정책을 고수하면서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개발 및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극좌파(JVP)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인기 영합적인 정책도 불가피한 상황임.

나. 타밀반군(LTTE)과의 지속적인 긴장관계로 인한 치안 불안

- 방글라데시 정부의 타밀반군과의 정전협정(2002.2.22 체결) 폐기 결정에 따라 양측의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잦은 무차별 테러로 인해 치안이 불안한 상태임.
- 방글라데시 정부는 반군의 요인암살, 무차별 테러 등 잦은 협정 위반으로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하다는 판단 하에 협정 폐기 결정을 내렸으며, 반군은 정부의 강경 군사작전에 강력히 반발, 결사항전을 천명하였음.
- 금년 2월중 15건의 무차별 테러로 90여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했으며, 정부 당국은 금년 8월까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회복을 천명하고 있어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군사작전과 함께 전체정당회의(APRC)를 통해 타밀족 점령지에 대한 정치제도 개편안을 마련, 북부주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제안의 최종안 마련은 불투명한 상황임.

다. 대서방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악화

□ 정전협정 폐기 및 군사작전 강화에 따른 서방국가의 불만 고조

- 타밀반군 진압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으며, 정전협정 폐기에 따른 노르웨이 중심 국제감시단(SLMM)의 철수로 인권 남용사태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서방국가 차관 및 원조 축소(중단) 움직임이 감지됨.
- 최근 이러한 서방국의 지원 공백을 중국, 일본, 이란 등이 메우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라. 외국 원조 및 차관자금 의존도 심화

□ 수년간에 걸친 타밀반군과의 군사대결로 군비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재정확대의 결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주요 인프라 개발 추진에 외국 원조 및 차관자금 의존도가 높아짐.

- 2008년 군비지출 예산이 전년대비 19%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대비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7~8%에 달하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음.
- 도로, 항만, 철도, 발전, 상하수도 등 대부분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외국 원조 또는 차관자금에 주로 의존함.

마. 경제성장 둔화

□ 타밀반군과의 군사 긴장관계 악화,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수출 및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가 경제성장을 제고의 관건이 될 것임.

- 타밀반군과의 군사 긴장관계 악화로 관광산업 등 서비스 분야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 저하에 따라 투자 및 소비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각종 세금, 국제유가, 생필품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물가가 급상승(2007년 인플레이션률 18.5%)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방만한 통화의 주조로 인해 시장이자율이 20~25% 수준으로 급등함.
- 2007년 수출은 US\$ 77억 4천만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외국 원조 또는 차관자금 확대가 경기활성화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III. 서남아 4개국 투자여건과 진출 유망산업

1. 인도

가. 투자 여건

<그림 1> 인도의 투자여건

○ 거대한 시장잠재력 ○ 인도 경제의 높은 성장세 지속 ○ 인프라 투자 급증 ○ 지속적 대외개방정책 ○ 한-인도 CEPA 협상중	○ 중국산의 인도시장 진출 확대에 의한 가격 경쟁 확대 ○ 테러, 조류 독감 등의 우발 변수 ○ 연정 붕괴, 조기 총선거가능성 등 정치적 불안정성 ○ 대규모 재정적자
향후 기회요인 투자지로서의 강점	향후 위협요인 투자지로서의 약점
○ 우수한 인력 ○ 안정된 금융시스템 ○ 광활한 국토 ○ 지식기반 산업의 발달	○ 비용 상승 ○ 노무관리의 어려움 ○ 행정처리의 비효율

□ 인도는 한-인도 CEPA 협상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과의 동시다발적 포괄적 FTA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진출 기업의 조달 경쟁력 향상과 주요국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성장이 예상됨.

○ 자유무역협정 추진 이외에도 매년 기본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무역 자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가능 분야를 점차 개방하고 있음.

□ 풍부한 저임 인력과 우수한 인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성격에 맞는 적절한 인적자원 활용이 가능함.

- 경제 성장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내수 시장 선점형 투자에도 적합함.
- 최근의 루피화 강세, 인건비와 부동산임차료의 상승 등 비용상승 요인이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나 전반적인 투자 여건은 긍정적임.
 - 최근 2년간 약 13% 절상된 루피화와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건비 상승, 주요 도시의 사무실 임차료 급상승 등이 투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절대적 투자매력도를 감소시킬 수준은 아님.

나. 유망산업

□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

- 인도 정부의 소형차에 대한 소비세 인하 정책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새로운 할부금융 기법의 도입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의 동시 다발적 FTA 체결 전략에 따라 소형차 생산의 글로벌 제조허브로 부상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사의 생산량 증설 투자로 수년내 현 생산규모에서 약 70%의 생산량 증대가 예상됨.

□ 기계류, 금형 산업

-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최근 제조업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필수적인 산업용 공작기계 및 일반기계 산업, 금형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산업 발전 및 인프라 개발에 따라 건설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산업 등이 유망하며 통신, IT, 전자산업 역시 급성장하고 있음. 이 외에 의료, 제약 및 BT,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게임 및 문화콘텐츠, 섬유, 신발, 친환경 에너지, 소매업, 금융업 등이 유망함.

2. 파키스탄

가. 투자 여건

<그림 2> 파키스탄의 투자여건

○ 파키스탄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추진에 따른 투자위험도 및 비용감소 전망 ○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시장 확대효과 기대 및 지정학적 교두보 역할 가능 ○ 산업화 진전으로 이동통신, 자동차 등 고성장 산업 지속 출현, 시장기회 창출 용이 ○ 거대한 인구 규모에 기반을 둔 시장 성장 가능성	○ 중국,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과의 FTA 체결로 경쟁 격화 가능 ○ 불안정한 정치여건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으로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 정치 불안에 따른 바이어 이탈 ○ 기술력 저하로 저부가가치 제품 치중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향후 기회요인 투자지로서의 장점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 노동시장의 유연성 ○ 아시아 및 중동 시장접근성 양호 ○ 영어 사용 인력확보 용이	향후 위협요인 투자지로서의 약점 ○ 품질의 일관성 결여 및 기술력 부재 ○ 부정적 국가이미지 및 잦은 테러로 인한 치안 불안 ○ 수동적인 인력 ○ 열악한 인프라

□ 영어 사용이 가능한 저임 노동력이 풍부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가공무역을 위한 거점기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음.

○ 고용 및 해고와 관련된 규제가 매우 엄격한 인도에 비하여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인적자원 운용의 의사결정 상 제약이 적음.

○ 인건비가 같은 서남아 권역에 속한 인도에 비해 낮아 인도 및 제3국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 거점기지로서도 유망함.

□ 인구 규모 기준 세계 7위의 시장으로서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내수시장 선점형 투자가 가능

- 연평균 7%의 견실한 성장세 유지에 따라 내수시장의 확대가 관찰되고 있어 가공무역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시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치, 종교 갈등 및 열악한 인프라에 의해 투자 매력도 반감됨.

- 도로, 전기, 가스 등의 사회 인프라 부족, 고급 기능인력의 부족, 낙후된 공업 기술 및 설비로 인한 품질저하가 파키스탄 투자 진출의 장애요소임.
- 1947년 독립이후 수차례 발생한 군사 쿠데타 등의 정치불안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종교갈등, 치안불안정 등의 투자 장애요인이 있음.

나. 유망 산업

□ 섬유산업

- 파키스탄 섬유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풍부한 원자재, 저가의 노동력 등 섬유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이용하여 그동안 세계 중저가 면섬유제품에서 강세를 보여 왔으며 섬유산업은 현재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산업으로 성장하였음.
- 파키스탄 정부의 섬유산업 고도화 정책에 따라 의류제조 등 고부가 섬유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 섬유산업은 지난 1999년 이후 총 5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주로 방적(Spinning) 및 직조(Weaving)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파키스탄 섬유산업의 강점으로는 풍부한 면화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원자재 공급과 값싼 노동력, 섬유산업의 기초설비기반 확보,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다는 지정학적 특성 등을 들 수 있음.
-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설비현대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 설비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

- 파키스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내수시장의 성장에 따라 최근 4년간 연평균 1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정부도 자국 자동차부품 생산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부품 수요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자동차사의 생산량 증설 투자로 수년 내 현 생산규모 대비 약 70%의 생산량 증대가 예상됨.
- 견실한 경제성장세와 저금리기조, 다양한 할부금융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자동차 내수시장의 급속한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5/2006 회계연도의 승용차 판매는 16만 5천여 대를 기록, 전년대비 23% 증가한 데 이어 이듬해에서 9% 가까운 판매 증가세를 보임.
- 파키스탄 정부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도 강화,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관련 설비 수입에의 각종 세제혜택 부여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섬유산업과 더불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 실시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유망한 것으로 분석됨.

3. 방글라데시

가. 투자 여건

<그림 3> 방글라데시의 투자여건

- 연평균 6%대의 경제성장세 유지전망 - 개발 가능한 풍부한 천연자원	- 법규 및 규정의 잦은 변화 및 소급 적용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 - 높은 실업률 및 물가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향후 기회요인 투자지로서의 장점	향후 위협요인 투자지로서의 약점
-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에 따라 5년간 법인세 면제 등 각종 투자인센티브 부여 - 방글라데시산 섬유제품은 주요 수출국에서 무관세, 무쿼타 대우 등 수혜 - 저임의 풍부하고 근면한 노동력	- 기초산업 미발달 및 연관산업 부재로 인한 자본재 및 원자재 대외수입 의존도가 높아 비용 증대 요소로 작용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복잡한 절차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 잦은 노사분규와 숙련공의 부족 - 사이클론, 홍수 등의 자연재해 - 현지 금융조달의 어려움

□ 다소 성장세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연평균 6~7%의 고도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법인세 면제, 자본재 감가상각기간 단축 등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산 섬유제품은 주요 수출국에서 무관세, 무쿼타 대우 등의 수혜를 받으며 유리한 시장접근이 가능함.

○ EU,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로부터 무관세, 무쿼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미국시장에서도 무관세 시장접근 법안이 미하원에서 심의 중에 있는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유리한 시장접근이 가능함.

- ☐ 기초 산업의 미발달, 연관 산업 부재, 열악한 인프라와 자본재 및 원자재의 높은 대외수입의존도 등이 투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나. 유망 산업

☐ 섬유산업

- 노동조건 강화로 인한 중국섬유산업의 경쟁력 악화, 주요 시장에 대한 방글라데시산 섬유의 무관세, 무쿼타 혜택 수혜 등으로 인해 방글라데시가 섬유산업의 투자유망지로 재조명받고 있음.

☐ 자원 개발/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 천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이 미미하여 향후 개발을 통한 발굴 가능성이 높으며, 벵골만 연안 천연가스 개발 및 기타 석탄 및 가스 개발관련 프로젝트 진출이 유망함.
- 구조적인 전력생산시설 부족으로 정부의 전력생산 확대 3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입찰을 시행 중으로 가스 및 석탄 발전소 건설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야도 유망함.

☐ 통신망 및 IT 인프라 구축

- 방글라데시의 휴대폰 가입자수가 2007년말 기준 3500만명에 다다르는 등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신망 및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 기타 노동집약 산업인 신발산업, 현지의 풍부한 원피생산을 이용한 가공산업, 냉동식품산업, 도자기 및 경공업 산업 등도 유망분야임.

4. 스리랑카

가. 투자 여건

<그림 4> 스리랑카의 투자여건

○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 확대 ○ 인도, 파키스탄과의 FTA 발표로 대서남아진출 교두보 역할	○ 타밀반군과의 내전 심화로 정치·사회적 불안상태 지속 ○ 재정지출 및 통화량 증가로 물가, 이자율 상승 ○ 지속적인 무역적자 및 차관자금 유입 확대로 외환보유고 취약 ○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향후 기회요인 투자지로서의 강점	향후 위협요인 투자지로서의 약점
○ 개방적인 투자정책과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및 One-stop 서비스 ○ EU GSP 플러스 관세혜택 수혜에 따른 섬유산업 EU수출 우회기지 역할 ○ 투자기업에 외환관리상 특혜제도 운영 ○ 온순한 국민성 및 공용어 수준의 영어 사용에 따른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 인도를 배후로 한 서남아시아 교두보로서의 지리적 이점	○ 열악한 인프라 여건 ○ 기초산업 미발달 및 연관산업 부재로 인한 자본재 및 원자재 대외수입 의존도가 높아 비용 증대 요소로 작용 ○ 많은 공휴일과 엄격한 노동법으로 인한 노무관리의 어려움

☐ 외국의 원조 및 차관 도입을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확대됨.

○ 고속도로, 주요 항만, 철도, 화력 및 수력 발전설비, 상하수도, 청사 및 주택, 병원 등 각종 인프라 건설경기가 확대됨.

☐ EU GSP 플러스 관세혜택 수혜에 따른 EU 수출 우회기지로서 유망함.

- 인프라 기반이 열악하고 섬유부문을 제외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 및 부품의 현지 조달이 어렵다는 점과 엄격한 노동법으로 인해 노무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이 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킴.

나. 유망 산업

□ 연근해 수산물 어획 및 가공시설

- 섬나라로 각종 수산물이 풍부하나 선박 등 어획장비가 열악하고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동 분야에 대한 단독 및 합작투자 진출이 유망함.
- 최근 수산부 산하기관(CFHC)이 참치통조림 공장설립을 위한 우리나라 투자 관심업체를 물색하고 있으며 연근해 수산물 공동어획을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식품가공 및 포장기계·시설

- 정부의 농산물 수출지원정책 강화로 식품가공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의 식품 관련 건강과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음.
- 세계 최대의 차 생산 및 수출국의 하나이며 코코넛, 캐슈넛, 전통술 등 각종 농산물 가공 및 포장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 섬유 원단(부자재) 생산 및 가공시설

- 2007년 기준 주재국 섬유류(주로 봉제의류) 수출액은 33.4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34.1% 차지)로 주시장인 EU 및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확대세를 지속함.
- 마스홀딩, 브랜드스 등 대형 섬유의류업체들을 중심으로 오더몰량이 확대되고 있어 란제리, 캐주얼 의류용 중고급 원단생산, 레이스, 팬시아이템(의류부착용), 리본 등 원부자재에 대한 생산투자가 유망함.

□ 각종 건축 및 건설기자재 분야

-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인프라 프로젝트, 정부 청사, 병원, 주택(아파트)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건축자재 및 건설기자재 수요가 증가함.
- 시멘트, 창틀, 각종 패널, 철강 등 각종 건축 및 건설자재와 함께 중장비(중고포함), 덤프트럭 등 장비분야의 투자진출이 유망함.

□ 인도, 파키스탄 시장을 겨냥한 우회생산

- 인도, 파키스탄내 자체 공급이 부족하거나 생산이 취약한 화성염색, 인조 섬유사, 자동차 부품, 각종 플라스틱 제품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우회생산이 가능함.
-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겨냥한 우회생산 투자 유망분야의 집중 개발이 필요함.

IV. 서남아 투자 7계명

1. 현지의 문화 · 종교적 배경에 대하여 이해하라.

- ☐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힌두, 이슬람 등 해당 진출지역의 지배적인 종교에 대한 이해와 대가족 중심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중국, 베트남 등 우리 기업의 투자 경험이 많이 축적된 지역과는 인종구성, 상권, 종교,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 · 종교적 배경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인도는 국민의 80% 이상이 힌두교이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90% 이상이 이슬람교, 스리랑카는 60% 이상이 불교로, 종교는 이들 지역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 서남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대가족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회적인 위신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음.
- 현지 투자진출의 성공을 위해서는 종교적 관습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생활양식을 존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 없이는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투자 목적에 따라 투자처를 선택하라. : 인건비 對 시장선점

- ☐ 인도는 현지 시장 성장에 주목하여 시장선점형 투자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저임의 노동력에 주목하여 원가 절감형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도의 경우 고도의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노동 수요가 급증해 인건비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으나, 근로소득 향상으로 인하여 중산층이 형성되고 내수 소비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시장 선점형 투자가 바람직함.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인건비 경쟁력이 높아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한 투자가 유리하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경우 최근의 견실한 경제성장세와 함께 내수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 향후 시장 선점형 투자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원가 절감형 투자가 바람직함.

3. 현지인의 낙관적 견해보다는 철저한 사전조사에 의지하라.

- 투자 타당성의 조사과정에서 접촉하는 현지인들은 대부분 투자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투자 결과를 낙관시키는 것은 금물임.
- 투자 전에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투자 타당성을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며, 투자지역이 정해진 경우에는 현지 무역관, 자문기관 및 기존 투자 진출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투자 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함.

4. 입지선정시 지역별 발달 산업과 인프라 현황을 사전 점검하라.

- 서남아시아 지역의 평균적인 인프라 여건은 매우 열악하며, 국토가 매우 넓어 일국 내에서도 지역별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큰 만큼 입지 선정시 지역별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여건과 해당 지역의 발전 산업을 사전에 점검해야 함.

5. 제도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라.

- 투자관련 제도가 계속 변화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세제도, 노동관련 규제 및 제도, 투자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

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인도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자는 해고가 제한되는 등 노동관련 규제가 엄격하고 노조 결성을 통한 집단 행동도 많기 때문에 노무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수적임.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직업의식 고취 등을 위한 대책과 높은 이직률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배경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부터 권한 및 책임 이양, 성과 인센티브 부여, 구체적인 문서에 의한 지시 등의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음.
- 조세 제도가 복잡하고 투자 관련 제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숙지와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며,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생가능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 투자 인센티브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도의 수혜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혜대상이 되는 경우 제출 서류나 의무 이행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함.

6. 유관기관, 관계 당국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라.

- 서남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수준이 높은 편으로 각종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수립이 중요함.
- 각국 정부의 투명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악인 급행료 성격의 가벼운 뇌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불법적인 사업의 승인을 위한 뇌물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사업의 추진을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후진국과 마찬가지로 '官'의 힘이 커 현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 관계기관 접촉시 공관과 무역관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7. 한국문화와 현지문화의 조화는 필수

- 한국식 ‘빨리빨리’가 통하지 않는 문화로 각종 협상과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며, 현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 한국적인 근로문화를 강요해서는 안됨.
-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과는 매우 다른 서남아시아의 문화를 배우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함.
- 양국의 다른 문화를 잘 접목시켜 원활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경영진과 일선 근로자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현지인 중간관리자를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는지가 매우 중요함. 유능한 현지인 중간관리자를 채용해서 경영진의 의도가 일선에까지 원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식 ‘빨리빨리’를 고집하다보면 직원, 파트너 등과 불협화음이 생기고 오히려 사업 추진이 지연될 공산이 크므로 가급적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문헌]

- 인도 힌두근본주의 세력, 재기위한 몸부림, 친디아저널 12월호
- 인디아 톱 10 이슈, 친디아저널 12월호
- 인도 경제의 이슈와 현안, 친디아저널 11월호
- Country Report India, 2008년 1월, EIU
- Country Profile 2007, EIU
- 인도 신흥중산층의 소비키워드 (2007. 12. 31) 코트라
- The Great Indian Middle Class : Results from the NCAER Market Information Survey of Households, NCAER
- 인도경제를 해부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코트라)
- 인도, 소매업 개방 신중히 추진할 듯, 코트라 무역속보 2008. 1. 19
- 국별 투자 핵심가이드 파키스탄 (KOTRA)
- 해외투자 백서(KOTRA)
- Economic Survey 2006/2007(파키스탄 정부)
- BOI 투자현황
- BEPZA 투자현황 및 투자유치용 자료
- Monthly Business News 07 Nov. Dec. 08. Jan. IDLC finance limited,
- Quarterly economic Update, Bangladesh, sep. 2007, ADB

신문기사

- FY08 Growth seen below 9%, 비즈니스 스탠다드 2월 8일자
- Slower business growth brings down software cos' wage hike rate, Economic Times 2월 11일자
- CPM reiterates opposition to nuclear deal, Times of India 2008년 2월 12일
- Mayawati threatens UPA again, Times of India 2008년 2월 11일
- GDP forecast: Only IMF gets it spot on

웹사이트

- <http://www.iifcl.org/>
- <http://sezindia.nic.in/HTMLS/approved-sez.htm>
- <http://www.doingbusiness.org/>
- <http://www.moneycontrol.com>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 아프리카 선도시장 유망품목 및 진출확대 방안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 · 인도 · 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 진출전략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작성자

- ◆ 이해인 책임연구원 (아대양주팀)
 - ◆ 박민준 과장 (뉴텔리무역관)
 - ◆ 이성녕 과장 (카라치무역관)
 - ◆ 김한일 관장 (다카무역관)
 - ◆ 김양성 관장 (콜롬보무역관)
- 

Global Business Report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발 행 인 | 흥 기 화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8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